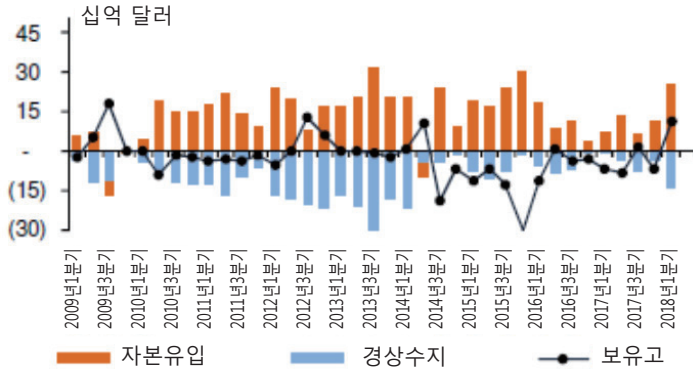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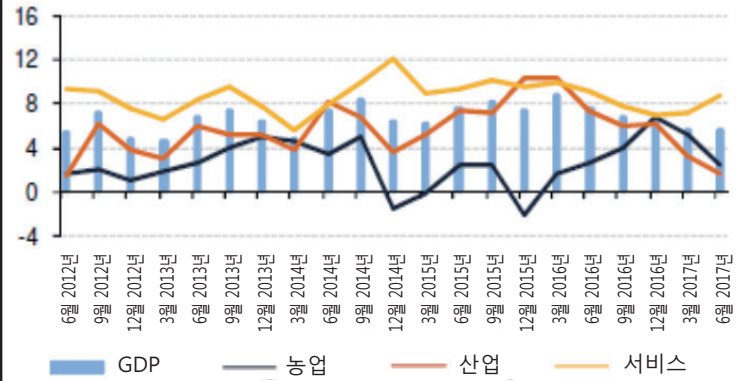


인도 국제수지



인도의 실질 GDP(활동기준)



출처: CSO, UTI MF Research

출처: CSO, UTI MF Research

1. 인도의 GST(상품 및 서비스세) 개혁 논의가 7월 1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다

7월 1일 오랫동안 기다리던 GST가 공식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GST는 다양한 부문에서 계층적 세율 구조로 구성되며 주/중앙 차원의 모든 다른세금을 대체합니다. 이 세금의 표준화는 인도 세무행정 중 가장 큰 개혁으로 기록됩니다. 이의 실행을 도입하고 지원하기 위한 IT 인프라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장기적으로 GST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 GDP의 최대 40bps에 달하는 세입 추가
- 인플레이션 관리
- 장기적인 재정수지 개선

2. 인도 중앙은행(RBI), 8월 통화정책 검토 회의 시 이자율 인하

통화정책위원회(MPC)는 5대 1의 투표로 정책기준금리를 6.25%에서 6.00%로 25bp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MPC 위원들은 근시일내의 성장에 대한 하향 위험(특히 화폐유통정지의 일시적 효과를 고려할 때)과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RBI는 인플레이션 궤도가 상승하기 전에 정책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 기회를 활용했고 중립적 정책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3. RBI, 소비자 물가 지수(CPI) 예측 조정 및 성장 추정 유지

RBI는 낮은 기저 효과 이후에 일부 상향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상향 위험에 대한 주된 요인에는 일부 야채 가격의 상승, 농장 대출 면제, GST 시행 이후 세율 조정 및 전 지역에서 시행될 7차 임금 및 수당 조정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양호한 몬순 기후, 안정적인 근원 인플레이션 및 안정적인 세계 상품가격과 같은 조정 요인으로 상승세는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H2 FY18에 대한 CPI 전망은 3.5~4.5%입니다(여전히 RBI의 콤포트 밴드 이내). 한편 FY18에 대한 GVA(Gross Value Add) 성장 예측은 7.3%로 유지되었습니다.

4. Q1 FY18에 대한 GDP 성장률, 일시적인 요인을 반영하여 4년 내 최저치로 둔화

1분기(4-6월) GDP 성장률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전년 대비 5.7%로 둔화되었습니다: (1) 경제에 일시적인 충격을 준 화폐유통정지의 영향, (2) GST 시행 새로운 세율 구조가 산업 전 부문에 아직 흡수되지 않음에 따라 GST 불안정성 이전에 산업 수요가 약화되었습니다. 향후, 성장은 소비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화폐유통정지 이후, CBDT(Central Board of Direct Taxes)는 4-8월 제출된 소득세 신고서에서 이미 전년도 동기 대비 24.7%의 상승을 보고했습니다. IMF는 FY18에 대한 인도의 연간성장률 전망을 7% 이상으로 유지했습니다.

5. 인도의 국제수지에서 막대한 자본유입에 따라, 외환보유고에 \$110억 달러 추가

Q1 FY18 대외균형이 자본유입으로 지지되었습니다. 금융수지에서 FDI(외국인직접투자) 및 FII(외국기관투자자) 모두 급격한 유입이 목격되었습니다. FDI는 Q4 FY17 대비 89% 상승하여 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디스는 상품 및 서비스세 및 파산법과 같은 개혁의 결과로 FDI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FDI는 자본(\$7억 달러) 및 부채(\$112억 달러) 모두에서의 유입을 반영했습니다. Q1 중의 인플레이션 하락과 더 강력한 INR로 인한 견조한 채무 유입으로 인도의 거시 경제는 안정적입니다. 경상수지적자(CAD)는 높아진 수입 결제로 인해 4년 내 최고치로 확대되었지만, 외환보유고는 이전 분기에 \$73억 달러가 추가된 데 비해, Q1 FY18에는 \$114억 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상당한 FDI 유입과 성장 인플레이션 역학에 대한 발표된 개혁의 긍정적인 전파로 볼 때 CAD 자금흐름은 다시 한 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연방 내각, 공공 부문 은행의 합병에 대한 대체 메커니즘 구성을 승인하다

무디스는 규모의 효율성과 개선된 기업 거버넌스 때문에 인도의 공공부문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무디스는 자산의 질에 대한 전망 개선으로 인도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전망이 안정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7. RBI, 마살라 채권을 ECB 범주로 이전함으로써 FPI에 대한 기업채권 한도 내에 여유 조성

RBI에서 2017년 10월 3일부터 마살라 채권이 FPI에 대한 기업채권 투자 한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대신, ECB (대외 상업 채무)의 일부가 되며 그에 따라 모니터링됩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FPI 투자에 여유가 생기며 INR 44,001 천만 루피(약 \$67억 달러) 규모의 기업 부문 여유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는 향후 2분기에 걸쳐 FPI 투자자에게 허용됩니다. (비고: 마살라 채권은 인도 루피화 기표 채권이지만 외 해외거래소에서 발행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 투자자에 대한 기업채권 한도가 95% 표지를 초과한 이후 이루어집니다.)

이 보고서는 주식/단위 제안을 구성하지 않으며 의견이나 광고에 대해 추천이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임의의 증권이나 가격에 대한 향후 가능성 있는 움직임에 대한 예측이나 진술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상기 주장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이 보고서를 받는 특정한 사람의 특정 목적, 재무적 상황 및 특정 필요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문서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이 문서에 언급된 임의의 증권, 금융상품 또는 투자 전략의 적합성에 대해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